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 조사연구 - 일반환경변인을 중심으로 -

박은미 · 김영숙 · 손희순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Brassiere for Elderly Women - Focusing on General Environment -

Eun-Mi Park, Young-Sook Kim and Hee-Soon Soh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目 次

Abstract	2. 노년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
I. 서 론	3.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치수 인지도 및 치수 분포
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결 론
1. 조사대상 및 방법	1. 결론 및 제언
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2. 연구의 제한점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fundamental information about wearing method and production of brassiere, which is suitable for physiological hygiene and efficient action for elderly women.

The subject is 418 elderly women aged 50~69 years old. Data is processed by a computer(SAS) and is analyzed by using frequency, percentage, χ^2 -tes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Elderly women' weight and breast size are higher than their younger counterparts'

- in their 20's, but the older and poorer women with more children have smaller weight and breast. Most of the elderly women feel that their breasts are drooped or falling apart. In fact, those elderly women who gave birth to more children have more drooped and wider breasts. the major type of elderly women' breasts is the 'drooped breast' featured more by those elderly women who have more children.
2. Most of the elderly women began to wear the brassiere for the first time in their 20's, the older women with more children began to wear the brassiere earlier, while those less educated and poorer began to protect their breasts with brassiere later. Many elderly women wear the brassiere to be protected from dirt, noise or look more neat, but day tend to wear the brassiere not all day around but at certain times. older, less educated and poorer women with more children tend to use the brassiere for etiquette and less often. This group of elderly women feel tedious, strange or uncomfortable for the brassiere.
 3. Most of the elderly women know about their brassiere size. Such variables as age, education and income a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the interest in and consciousness of the brassiere size. All in all, the statistical distribution of elderly women's brassiere size is very wide, while most of them use 90A, 85A and 95A sizes. On the other hand, the most popular size for the under bust circumference is 85~90cm, while their primary cup size is A.

I. 서 론

노인의복은 노인의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연구분야이다. 노인에게 있어서 깨끗하고 단정한 의복은 증진되거나 악화된 그들의 사회적 권위 및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는데 도움을 주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지의 수단으로써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근래 노년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신체미 향상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져 외형적인 형식이 중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알맞은 화운데이션 착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지방분이 신체의 아래부분으로 옮겨져 배가 나오고 엉덩이의 처짐과 유방의 처짐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신체의 치수와 프로포션은 더욱 변화하게 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척추의 점진적인 축소현상에 따라 높이항목은 감소하고, 들레항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의복선택이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용 화운데이션의 캐주얼화라는 최근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아름다운 프로포션을 만들기 위한 기능성, 쾌적한 착용감, 그리고 엘레강스 지향의 디자인성이 높은 화운데이션 상품개발의 필요성은 노년여성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과제이다.

개체간의 체형 변화가 많은 노년여성용 화운데이션 제품의 고급화와 함께 기능성·심미성이 일차된 우수한 제품생산을 위해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50~60대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브래지어 착용현황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노년여성의 체형과 기호에 알맞는 우수한 브래지어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연령의 구분

노년층의 연령구분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은 없으며 학문연구분야나 학자들에 따라 연령구분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관습상 만 60세에 환갑을 맞이하고 일반적으로 55~65세에 정년퇴임하며 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노인으로 지각하는 연령을 60세로 보는 사람이 많고 UN에서도 60세부터를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을 파악하려면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노년의 전 단계(pre-elderly)와 비교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브래지어 생산판매업체의 실무자 및 판매자와의 면담결과 브래지어 판매대상자로서의 노년의 시각을 50세로 보는 경향이 있고 노인의 신체와 유방형태의 변화추이를 파악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50~69세 사이의 여성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령간 브래지어 착용실태 차이와 변화추이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도록 5세 단위로 연령을 구분하였다.

2) 조사방법

본 조사는 1996년 2월 12일에서부터 2월 20일에 걸쳐 예비설문지를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1996년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년여성 중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노년여성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그 중 통계처리가 가능한 418명을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직접 인터뷰하였으며 불완전한 응답지를 제외한 418명의 설문지가 자료처리에 이용되었다.

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과 브래지어 관련업체와의 면담 및 제공자료를 참고하여 총 18문항의 설문지로서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출산자녀수, 수유경험에 관한 7문항과 신체적 변인인 체중변화, 유방의 크기변화, 유방의 처짐 및 벌어짐의 변화, 유방유형에 대한 5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 조사를 위한 문항으로는 브래지어 시착시기, 착용시간, 착용목적, 미착용 이유 등 총 4문항이고 그 중 브래지어 착용목적, 미착용 이유에 관한 문항은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답형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3)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치수인지도 및 치수분포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치수인지도 및 분포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총 2문항이 사용되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조사를 위한 설문자료는 SAS로 전산처리하였으며 산술통계와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행하여 χ^2 -test로 유의성 검증을 하였고, 전 항목별 무응답은 missing value로 처리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신체적 변인인 체중, 유방크기 변화, 유방의 처짐 및 벌어짐의 변화, 유방유형의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출산자녀수별로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구한 후, 교차분석을 행하여 χ^2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시착시기와 착용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출산자녀수별로 교차분석을 행하여 χ^2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착용목적, 미착용 이유를 연령별로 파악하기 위해 중복응답에 의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는데, 한 문항에서 두개 이상을 응답하도록 되어진 중복응답의 경우는 응답빈도과 달라지며 상대적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로 표준화된 기준에 대해 상대적 크기의 차를 파악하기 위해서 응답자 수에 대한 응답빈도의 백분율을 구한 후 χ^2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치수인지도 및 치수분포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치수인지도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출산자녀수별로 파악하고 치수분포는 연령별, 유방유형별로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구하고 교차분석을 행하여 χ^2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특성을 <표 1>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50대 초반은 36.8%, 50대 후반은 20.8%, 60대 초반은 19.4%, 60대 후반은 23.0%로 표집되었다. 거주지는 총 5개 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그 중 강남지역이 22.7%, 기타지역 23.0%로 가장 많이 표집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학력은 고등학교졸업이 34.2%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졸업 이하 28.9%, 중학교졸업은 19.1%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32.3%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30.9%, 100만원 미만 21.6%, 300만원 이상 15.2%로 표집되었다. 직업은 주부 81.9%, 전문직 7.5%, 판매서비스직 4.1%를 나타내어 대부분 주부로 구성되어 있다. 출산자녀수는 대체로 전체 노년여성의 67.9%가 3~5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92.3%가 수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환경변인		통계치	인 원 (명)	백분율 (%)	환경변인		통계치	인 원 (명)	백분율 (%)
연령	50대 초반(50~54세)		154	36.8	거주지	강 북		68	16.3
	50대 후반(55~59세)		87	20.8		강 남		95	22.7
	60대 초반(60~64세)		81	19.4		강 동		80	19.1
	60대 후반(65~69세)		96	23.0		강 서		79	18.9
	전 체		418	100.0		기 타		96	23.0
						전 체		418	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졸업 이하		121	28.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81	21.6
	중학교졸업		80	19.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1	32.3
	고등학교졸업		143	34.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16	30.9
	전문대 이상		74	17.7		300만원 이상		57	15.2
	전 체		416	100.0		전 체		417	100.0
직업	주부		317	81.9	출산자녀수	0~2명		99	23.7
	전문직		29	7.5		3~5명		284	67.9
	경영관리직		6	1.6		6명 이상		35	8.4
	전문기술직		8	2.1		전 체		416	100.0
	사무직		2	0.5		수유경험	있다		385
	판매서비스직		16	4.1	없다			32	7.7
	기능직		2	0.5	전 체			417	100.0
	농림수산업		7	1.8					
	전 체		387	100.0					

<표 2> 노년여성의 체중변화 정도

명(%)

연령	변화정도	많이 감소	약간 감소	변함 없음	약간 증가	많이 증가	유의수준
50대 초반		2(1.3)	8(5.2)	10(6.5)	56(36.4)	78(50.7)	$\chi^2=31.67^{**}$ df=12 p<.01
50대 후반		4(4.6)	6(6.9)	10(11.5)	27(31.0)	40(46.0)	
60대 초반		4(4.9)	11(13.6)	9(11.1)	22(27.2)	35(43.2)	
60대 후반		14(14.6)	5(5.2)	11(11.5)	22(22.9)	44(45.8)	
전 체		24(5.7)	30(7.2)	40(9.6)	127(30.4)	197(47.1)	
교육수준	변화정도	많이 감소	약간 감소	변함 없음	약간 증가	많이 증가	유의수준
초등학교졸업 이하		12(9.9)	11(9.1)	14(11.6)	28(23.1)	56(46.3)	$\chi^2=27.54^{**}$ df=12 p<.01
중학교졸업		8(10.0)	8(10.0)	8(10.0)	23(28.8)	33(41.3)	
고등학교졸업		1(0.7)	5(3.5)	11(7.7)	58(40.6)	68(47.6)	
전문대 이상		3(4.1)	6(8.1)	7(9.5)	18(24.3)	40(54.1)	
전 체		24(5.7)	30(7.2)	40(9.6)	127(30.4)	197(47.1)	
소득수준	변화정도	많이 감소	약간 감소	변함 없음	약간 증가	많이 증가	유의수준
100만원 미만		12(14.8)	7(8.6)	10(12.4)	19(23.5)	33(40.7)	$\chi^2=25.46^{**}$ df=12 p<.0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1.7)	6(5.0)	16(13.2)	42(34.7)	55(45.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6.0)	8(6.9)	10(8.6)	37(31.9)	54(46.6)	
300만원 이상		0(0.0)	4(7.0)	4(7.0)	18(31.6)	31(54.4)	
전 체		21(5.6)	25(6.7)	40(10.7)	116(30.9)	173(46.1)	
출산자녀수	변화정도	많이 감소	약간 감소	변함 없음	약간 증가	많이 증가	유의수준
0~2명		4(4.0)	5(5.1)	13(13.1)	31(31.3)	46(46.5)	$\chi^2=22.74^{**}$ df=8 p<.01
3~5명		15(5.3)	17(6.0)	24(8.5)	89(31.3)	139(48.9)	
6명 이상		5(14.3)	8(22.9)	3(8.6)	7(20.0)	12(34.3)	
전 체		24(5.7)	30(7.2)	40(9.6)	127(30.4)	197(47.1)	

2) 신체적 변인

노년여성의 신체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출산자녀수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년여성의 체중변화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고 전체적으로 노년여성의 체중은 20대

연령시기와 비교하여 대부분 '많이 증가하였다'(47.1%), '약간 증가하였다'(30.4%), '거의 변함없다'(9.6%), '약간 감소하였다'(7.2%) 순으로 응답하여 체중의 증가현상(77.5%)이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노년여성의 체중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를 나타내 50대 초반 여성은 체중의 증가현상이 정점(87.1%)에 이르고, 그 후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50대 후반이 되면 77.0%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에 들어서면서도 체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학력이 높아지면서 체중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져 고등학교졸업은 88.2%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전문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중학교 졸업 집단에서는 각각 19.0%와 20.0%의 노년여성은 체중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여 고학력 집단보다 체중감소가 다소 커 교육수준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 분석해 보면, 100만원 이상의 세 집단의 경우 모두 78% 이상의 대부분의 여성이 체중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는 반면 10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는 64.2%가 '증가하였다'고 하였고, 23.4%는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여 체중의 증가현상 못지 않게 감소현상도 크게 일어나고 있어 소득수준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출산자녀수별로 살펴보면 0~2명과 3~5명의 집단은 77.8%와 80.2%의 비율로 대다수의 여성이 체중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6명 이상의 집단에서는 54.3%가 '증가하였다'고 한 반면 37.2%는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여 타 집단에 비해 체중의 감소현상이 높게 나타나 출산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체중의 증가현상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노년여성들의 체중은 20대 연령시기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 체중증가의 경향은 둔화되고 감소현상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체중의 증가현상은 증가하나 고등학교졸업 집단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여성의 유방크기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노년여성의 유방의 크기는 20대 연령시기와 비교하여 '약간 증가하였다'(28.0%), '많이 증가하였다'(26.8%), '약간 감소하였다'(19.0%), '변함없다'(15.9%), '많이 감소하였다'(10.4%) 순으로 나타나 체중의 증가현상과 함께 유방의 크기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방크기의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 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주로 '증가하였다'의 출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방의 크기가 증가하였다는 경우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방의 크기가 감소하였다는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60대여성은 유방크기가 증가하는 현상 못지 않게 감소하는 현상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아지면서 '증가하였다'는 출현율이 대체로 증가하여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증가추세의 정점(69.5%)을 이루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에서는 증가추세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위학력에서는 증가비율과 감소비율의 차가 적어 유방크기의 증가·감소경향이 동시에 나타나 교육수준별 유방크기의 유의적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의 집단은 과반수 이상이 유방크기가 '증

<표 3> 노년여성의 유방크기의 변화 정도

명(%)

연령	변화정도	많이 감소	약간 감소	변함 없음	약간 증가	많이 증가	유의수준
50대 초반		6(3.9)	28(18.2)	27(17.5)	51(33.1)	42(27.3)	$\chi^2=19.39^{**}$ df=12 p<.05
50대 후반		13(14.9)	11(12.6)	13(14.9)	25(28.7)	25(28.7)	
60대 초반		8(10.0)	19(23.8)	12(15.0)	20(25.0)	21(26.3)	
60대 후반		16(17.0)	21(22.3)	14(14.9)	20(21.3)	23(24.5)	
전 체		43(10.4)	79(19.0)	66(15.9)	116(28.0)	111(26.8)	
교육수준	변화정도	많이 감소	약간 감소	변함 없음	약간 증가	많이 증가	유의수준
초등학교졸업 이하		17(14.1)	28(23.1)	21(17.4)	28(23.1)	27(22.3)	$\chi^2=31.47^{**}$ df=12 p<.01
중학교졸업		13(16.5)	18(22.8)	15(19.0)	14(17.7)	19(24.1)	
고등학교졸업		5(3.6)	24(17.0)	14(9.9)	54(38.3)	44(31.2)	
전문대 이상		8(10.8)	9(12.2)	16(21.6)	20(27.0)	21(28.4)	
전 체		43(10.4)	79(19.0)	66(15.9)	116(28.0)	111(26.8)	
소득수준	변화정도	많이 감소	약간 감소	변함 없음	약간 증가	많이 증가	유의수준
100만원 미만		15(18.5)	18(22.2)	19(23.5)	16(19.8)	13(16.1)	$\chi^2=22.74^{**}$ df=8 p<.0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6.7)	22(18.3)	23(19.2)	35(29.2)	32(26.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8.8)	16(14.0)	16(14.0)	41(36.0)	31(27.2)	
300만원 이상		4(7.0)	12(21.1)	6(10.5)	15(26.3)	20(35.1)	
전 체		37(10.0)	68(18.3)	64(17.2)	107(28.8)	96(25.8)	
출산자녀수	변화정도	많이 감소	약간 감소	변함 없음	약간 증가	많이 증가	유의수준
0~2명		4(4.0)	19(19.2)	21(21.2)	32(32.3)	23(23.2)	$\chi^2=22.74^{**}$ df=8 p<.01
3~5명		27(9.6)	51(18.2)	43(15.3)	78(27.8)	82(29.2)	
6명 이상		12(34.3)	9(25.7)	2(5.7)	6(17.1)	6(17.1)	
전 체		43(10.4)	79(19.0)	66(15.9)	116(28.0)	111(26.8)	

가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1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35.9%만이 증가하였다'고 하였고, 40.7%는 '감소하였다'고 하여 오히려 증가현상 보다 감소현상이 현저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일 수록 유방의 크기가 감소하는 유의적 결과를 나타냈다.

출산자녀수별로 분석해 보면 0~2명과 3~5명의 출산을 경험한 노년여성은 '증가하였다'의

응답율이 55.5%와 57.0%로 '감소하였다'(23.2%, 27.8%)의 응답을 보다 더 높게 나타냈지만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오히려 34.2%가 '증가하였다'고 하였고 60.0%가 '감소하였다'고 하여 증가현상에 비해 감소현상이 현저하여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방크기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노년여성의 유방크기의 변화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의 경향이 크며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방 크기의 감소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인 증가현상과 함께 감소현상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노년여성의 유방치짐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노년여성의 77.1%가 '약간 처졌다'와 '많이 처졌다'에 높은 응답율을 보여 노년여성의 유방하수의 심화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처졌다'에 대한 응답율이 높아지는 연령간의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 노년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의 처짐정도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55세 이상의 노년여성 398명에 대한 신체계측치 분석결과 노년후기 집단의 유방하수 정도를 의미하는 항목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나 노년후기로 가면서 유방이 많이 처진다는 이경화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분석해 보면, '처졌다'에 대한 응답율이 중학교 졸업(78.8%), 초등학교 졸업 이하(77.7%), 고등학교 졸업(77.6%), 전문대 이상(73.0%) 순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전문대 이상인 경우는 '변함 없음'에 대한 응답율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학력인 경우는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방치짐이 적은 결과를 나타냈다.

소득수준별로 분석해 보면, '처졌다'에 대한 응답율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인 경우 또한 '처졌다'에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변화 없음'에 대한 응답율이 약 30%에 가깝게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유방치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자녀수에 따라 분석해 보면, 출산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처졌다'에 높은 응답율이 보여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노년여성은 94.3%가 '처졌다'고 응답하여 신체의 노화현상과 동시에 오랜 수유로 인한 처짐의 결과로 추측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노년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의 처짐 정도가 커지고 교육수준이 높으면 유방하수 정도가 적으며 소득수준이 아주 낮거나 높은 경우는 오히려 유방하수에 대한 변화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자녀수가 많은 노년여성이 유방치짐의 정도가 심한 결과를 보였다.

노년여성의 유방의 꺾꼭지간격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노년여성의 74.6%가 자신의 유방이 '벌어졌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여성은 유방의 하수와 함께 유방의 벌어짐 현상도 심화됨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별 분석결과 연령별, 교육수준별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소득수준과 출산자녀수에 따라서 집단간의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200만원 이하인 집단은 약 70%가 '벌어졌다'고 하였고 약 30%가 '변함없다'고 하였으며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집단은 81.0%가 '벌어졌다'고 하였고 19.0%가 '변함없다'고 하였다. 300만원 이상인 노년집단은 60.8%가 '벌어졌다'고 인식하고

<표 4> 노년여성의 유방처짐 정도

명(%)

연령	변화정도	변함 없음	약간 처짐	많이 처짐	유의수준
50대 초반		27(17.5)	79(51.3)	48(31.2)	$\chi^2=16.53^*$ df=6 p<.05
50대 후반		18(20.7)	48(55.2)	21(24.1)	
60대 초반		22(27.2)	50(61.7)	9(11.1)	
60대 후반		29(30.2)	49(51.0)	18(18.8)	
전 체		96(23.0)	226(54.1)	96(23.0)	
교육수준	변화정도	변함 없음	약간 처짐	많이 처짐	유의수준
초등학교졸업 이하		27(22.3)	57(47.1)	37(30.6)	$\chi^2=18.70^{**}$ df=6 p<.01
중학교졸업		17(21.3)	36(45.0)	27(33.8)	
고등학교졸업		32(22.4)	89(62.2)	22(15.4)	
전문대 이상		20(27.0)	44(59.5)	10(13.5)	
전 체		96(23.0)	226(54.1)	96(23.0)	
소득수준	변화정도	변함 없음	약간 처짐	많이 처짐	유의수준
100만원 미만		24(29.6)	33(40.7)	24(29.6)	$\chi^2=12.89^*$ df=6 p<.0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5(20.7)	71(58.7)	25(20.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6(22.4)	73(62.9)	17(14.7)	
300만원 이상		17(29.8)	27(47.4)	13(22.8)	
전 체		92(24.5)	204(54.4)	79(21.1)	
출산자녀수	변화정도	변함 없음	약간 처짐	많이 처짐	유의수준
0~2명		30(30.3)	52(52.5)	17(17.2)	$\chi^2=22.00^{***}$ df=4 p<.001
3~5명		64(22.5)	159(56.0)	61(21.5)	
6명 이상		2(5.7)	15(42.9)	18(51.4)	
전 체		96(23.0)	226(54.1)	96(23.0)	

39.2%가 '변함없다'고 응답을 하여 타 집단에 비해 유방 벌어진 정도가 적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출산자녀수별로 분석한 결과, 0~2명은 69.7%, 3~5명은 77.5%, 6명 이상은 94.3% 순으로 나타나 출산자녀수가 유방의 벌어진 정도가 심화됨을 알 수 있다.

<표 5> 노년여성의 유방의 젖꼭지간격 변화 정도

명(%)

변화정도	변함 없음	양옆으로 약간 벌어졌다	양옆으로 많이 벌어졌다	유의수준
연령				
50대 초반	45(29.2)	85(55.2)	24(15.6)	$\chi^2=12.39^*$ df=6
50대 후반	21(24.1)	52(59.8)	14(16.1)	
60대 초반	15(18.8)	46(57.5)	19(23.8)	
60대 후반	25(26.0)	42(43.8)	29(30.2)	
전 체	106(25.4)	225(54.0)	86(20.6)	
변화정도	변함 없음	양옆으로 약간 벌어졌다	양옆으로 많이 벌어졌다	유의수준
교육수준				
초등학교졸업 이하	23(19.2)	34(28.3)	63(52.5)	$\chi^2=12.10^*$ df=6
중학교졸업	25(31.3)	19(23.8)	36(45.0)	
고등학교졸업	38(26.6)	23(16.1)	82(57.3)	
전문대 이상	20(27.0)	10(13.5)	44(59.5)	
전 체	106(25.4)	86(20.6)	225(54.0)	
변화정도	변함 없음	양옆으로 약간 벌어졌다	양옆으로 많이 벌어졌다	유의수준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4(29.6)	23(28.4)	34(42.0)	$\chi^2=17.50^*$ df=6 p<.0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6(29.8)	15(12.4)	70(57.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2(19.0)	24(20.7)	70(60.3)	
300만원 이상	22(39.2)	10(17.9)	24(42.9)	
전 체	104(27.8)	72(19.3)	198(52.9)	
변화정도	변함 없음	양옆으로 약간 벌어졌다	양옆으로 많이 벌어졌다	유의수준
출산자녀수				
0~2명	30(30.6)	14(14.3)	54(55.1)	$\chi^2=12.24^*$ df=4 p<.05
3~5명	72(25.4)	58(20.4)	154(54.2)	
6명 이상	4(11.4)	14(40.0)	17(48.6)	
전 체	106(25.4)	86(20.6)	225(54.0)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노년 여성의 젖꼭지 간격의 변화정도는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소득수준별로는 불규칙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젖꼭지 간격의 변화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다수의 노

년여성이 다산으로 인한 오랜 수유로 벌어짐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로 사료된다.

노년여성의 유방유형 분포결과에 대한 결과는 <표 6>에서와 같이 전체 노년여성의 유방유형은 하수형 I (47.6%), 하수형 II (17.7%), 원추형(11.7%), 반구형(9.1%), 돌출형(7.7%), 납작형(6.2%)의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노년여성이 자신의 유방형태를 하수형으로 인지하고 있다. 20대여성의 경우 접시형 또는 접시형과 반구형의 중간형, 40대 여성의 경우 반구형 또는 반구형과 접시형의 중간형이 많다는 박은미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연령간의 유방유형의 특징차이를 보이며 성인여성의 유방형태는 납작형(접시형)에서 하수형(산양유방형)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유방유형의 분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방이 처진 형인 하수형 I 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근육에 탄력이 없고 유방이 심한 처진 특징을 갖는 하수형 II도 출현율이 높지는 않지만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출현하며, 특히 60대 이상에서 더욱 높은 출현율을 나타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방의 하수 정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유방의 처짐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와 상충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하수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방유형의 경우 연령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 연령에 관계없이 개체 차에 의해 유방의 특징이 결정되는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분석하면, 고등학교졸업 이하는 하수형 I · II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전문대 이상은 54.1%가 하수형 I · II에서 분포되고 원추형, 반구형에서 각각 17.6%가 분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하수형 I · II에서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납작형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여 연령에 따른 변화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유의적인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하수형 I (48.8%), 하수형 II (16.8%), 원추형(12.8%), 반구형(9.1%)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자녀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0~2명인 경우는 하수형 I · II (63.6%), 반구형(14.1%), 원추형(10.1%) 순으로, 3~5명은 하수형 I · II (64.8%), 원추형(13.4%), 돌출형(8.1%) 순으로, 6명 이상은 하수형 I · II (74.3%), 돌출형(11.4%), 반구형(8.6%) 순으로 분포되었으며 출산자녀수가 많아질수록 하수형에 많은 분포를 보여 이 또한 오랜 수유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결과로 노년여성 유방형태의 대부분은 하수형이며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고른 유방유형의 분포를 가지며 소득수준에 따른 유형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며 출산자녀수가 많아질수록 하수형의 분포 비율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노년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

브래지어 착용실태에 대한 조사자료는 시착시기, 착용목적, 착용시간, 치수 인지도 및 분포에 관한 문항으로 분류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별로 분석하였다.

1) 브래지어 시착시기

노년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처음 착용한 시기에 대해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출산자녀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고, 전체 노년여성이 브래지어를 처음 착용한 때는 46.5%, 29.7%로 20대와 10대가 주로 많았고 30대~40대에서 19.4%였으며 50대에 브래지어를 처음

<표 6> 노년여성의 유방유형 분포

명(%)

연령	유방유형						유의수준
	납작형	원추형	반구형	돌출형	하수형 I	하수형 II	
50대 초반	7(4.6)	23(14.9)	17(11.0)	11(7.1)	84(54.6)	12(7.8)	$\chi^2=36.17^{**}$ df=15 p<.001
50대 후반	11(12.6)	7(8.1)	10(11.5)	8(9.2)	37(42.5)	14(16.1)	
60대 초반	3(3.7)	7(8.6)	2(2.5)	4(4.9)	42(51.9)	23(28.4)	
60대 후반	5(5.2)	12(12.5)	9(9.4)	9(9.4)	36(37.5)	25(26.0)	
전 체	26(6.2)	49(11.7)	38(9.1)	32(7.7)	199(47.6)	74(17.7)	

교육수준	유방유형						유의수준
	납작형	원추형	반구형	돌출형	하수형 I	하수형 II	
초등학교졸업 이하	11(9.1)	15(12.4)	6(5.0)	12(9.9)	49(40.5)	28(23.1)	$\chi^2=31.53^{**}$ df=15 p<.01
중학교졸업	4(5.0)	7(8.8)	7(8.8)	4(5.0)	40(50.0)	18(22.5)	
고등학교졸업	5(3.5)	14(9.8)	12(8.4)	14(9.8)	74(51.8)	24(16.8)	
전문대 이상	6(8.1)	13(17.6)	13(17.6)	2(2.7)	36(48.7)	4(5.4)	
전 체	26(6.2)	49(11.7)	38(9.1)	32(7.7)	199(47.6)	74(17.7)	

소득수준	유방유형						유의수준
	납작형	원추형	반구형	돌출형	하수형 I	하수형 II	
100만원 미만	9(11.1)	11(13.6)	6(7.4)	4(4.9)	34(42.0)	17(21.0)	$\chi^2=14.38$ df=1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4.1)	16(13.2)	14(11.6)	9(7.4)	61(50.4)	16(13.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6(5.2)	18(15.5)	11(9.5)	5(4.3)	58(50.0)	18(15.5)	
300만원 이상	5(8.8)	3(5.3)	3(5.3)	4(7.0)	30(52.6)	12(21.1)	
전 체	25(6.7)	48(12.8)	34(9.1)	22(5.9)	183(48.8)	63(16.8)	

출산자녀수	유방유형						유의수준
	납작형	원추형	반구형	돌출형	하수형 I	하수형 II	
0~2명	7(7.1)	10(10.1)	14(14.1)	5(5.1)	53(53.5)	10(10.1)	$\chi^2=27.71^{**}$ df=10 p<.01
3~5명	18(6.3)	38(13.4)	21(7.4)	23(8.1)	135(47.5)	49(17.3)	
6명 이상	1(2.9)	1(2.9)	3(8.6)	4(11.4)	11(31.4)	15(42.9)	
전 체	26(6.2)	49(11.7)	38(9.1)	32(7.7)	199(47.6)	74(17.7)	

착용한 경우도 4.3%였다.

연령별 브래지어 시작시기는 유의적 차이를 보여 50대 여성 거의 대부분은 10대 또는 20대에 브래지어를 시작한 반면, 60대 여성은 10대에 시작한 경우는 적고, 20대 이후부터 각 연령

<표 7> 브라지어 시착시기

명(%)

시착시기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유의수준
50대 초반	79(51.3)	67(43.5)	6(3.9)	1(0.7)	1(0.7)	$\chi^2=167.47^{***}$ df=12 p<.001
50대 후반	27(31.0)	48(55.1)	5(5.8)	6(6.9)	1(1.2)	
60대 초반	9(11.1)	52(64.2)	15(18.5)	5(6.2)	0(0.0)	
60대 후반	9(9.5)	27(28.4)	20(21.1)	23(24.2)	16(16.8)	
전 체	124(29.7)	194(46.5)	46(11.0)	35(8.4)	18(4.3)	
시착시기 교육수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유의수준
초등학교졸업 이하	11(9.2)	47(39.2)	24(20.0)	25(20.8)	13(10.8)	$\chi^2=133.43^{***}$ df=12 p<.001
중학교졸업	15(18.8)	38(47.5)	16(20.0)	8(10.0)	3(3.8)	
고등학교졸업	54(37.8)	80(55.9)	5(3.5)	2(1.4)	2(1.4)	
전문대 이상	44(59.5)	29(39.2)	1(1.4)	0(0.0)	0(0.0)	
전 체	124(29.7)	194(46.5)	46(11.0)	35(8.4)	18(4.3)	
시착시기 소득수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유의수준
100만원 미만	10(12.5)	29(36.3)	14(17.5)	17(21.3)	10(12.5)	$\chi^2=76.80^{***}$ df=12 p<.00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2(34.7)	58(47.9)	15(12.4)	4(3.3)	2(1.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6(40.0)	55(47.4)	8(6.9)	6(5.2)	1(0.9)	
300만원 이상	26(45.6)	29(50.9)	1(1.8)	0(0.0)	1(1.8)	
전 체	124(33.2)	171(45.7)	38(10.2)	27(7.2)	14(3.7)	
시착시기 출산자녀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유의수준
0~2명	50(50.5)	39(39.4)	5(5.1)	4(4.0)	1(1.0)	$\chi^2=66.18^{***}$ df=12 p<.001
3~5명	71(25.1)	146(51.6)	33(11.7)	22(7.8)	11(3.9)	
6명 이상	3(8.6)	9(25.7)	8(22.9)	9(25.7)	6(17.1)	
전 체	124(29.7)	194(46.5)	46(11.0)	35(8.4)	18(4.3)	

대별로 다양하여 특히, 60대 후반의 경우 30대, 40대에도 시착율이 높고 50대에도 16.8%의 여성들이 처음 브라지어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대의 경우 대체로 20대 이전에 브라지어를 시착한 반면, 60대는 시착시기가 연령대별로 다양하여 시착시기가 늦은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를 우리나라 여학생의 브라지어 시착시기는 12, 3세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노년여성의 경우 과반수가 성인이 된 후 브래지어를 처음 착용함으로써 브래지어의 시착시기에 대한 인식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교육수준별 시착시기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80.0%의 여성이 20대에서 40대에 걸쳐 시착하였고 50대에 시작한 경우도 10.8%의 비율을 나타내 시착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은 20대(47.5%), 30대(20.0%), 10대(18.8%)의 순으로, 고등학교 졸업은 20대(55.9%), 10대(37.8%), 30대(3.5%)의 순으로 시착하였고, 전문대학 이상은 40대 이후로는 시착한 경우가 없고 10대(59.5%), 20대(39.2%), 30대(1.4%)의 순으로 시착하여 교육수준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어 학력이 높을수록 시착시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 저학력 집단에 비해 고학력 집단이 시착시기가 더 빠름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대(36.3%)와 40대(21.3%)에서 가장 높았고 30대(17.5%), 10대와 50대(12.5%)에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로 시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100만원 이상의 세 집단의 경우 모두 20대, 10대, 30대의 순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10대부터 시착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소득수준별 유의적 차이가 입증되었다.

출산자녀수별 시착시기 또한 유의적 차이를 보여 출산자녀수가 0~2명인 경우는 10대(50.5%)와 20대(39.4%)에 대부분이 시착한 반면 3~5명인 경우는 20대(51.6%), 10대(25.1%), 30대(11.7%) 순으로, 6명 이상인 경우는 20대와 40대(25.7%), 30대(22.9%) 순으로 시착한 것으로 나타나 출산자녀수가 적을수록 시착시기가 빨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년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 브래지어 시착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시착시기에 대한 일반환경변인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2) 브래지어 착용목적

노년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목적에 대해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출산자녀수와 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이 별다른 의미를 나타내지 않아 브래지어 착용목적은 연령과의 관계로 살펴 본 결과를 <표 8>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노년여성들은 '동작시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50.0%) 브래지어를 착용하며, 다음으로 '젖꼭지점 등 가슴형태가 의복위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45.7%), '치진 가슴을 받쳐주기 위해'(43.8%), '습관상'(33.4%) 순으로 나타나 방진, 정숙성, Bust-up 기능을 중요시하며, 그밖에 가슴의 전체균형 및 측면에서 가슴을 모아주는 기능 등 가슴형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정용효과를 기대하며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습관상' 착용하는 경우도 33.4%로 높게 나타나 특별한 목적 없이 브래지어를 착용하기도 하여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착용목적은 다양하다. 한편 연령별로는 '습관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령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노년여성은 연령과 관계없이 방진, 정용효과를 위해 또는 정숙성의 목적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10~15대에 이르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타 보고의 결과와도 유사하여 본 연구의 노년여성 브래지어 착용목적은 전 연령대에 걸쳐 브래지어 본래 착용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다.

<표 8> 브라지어의 착용목적

명(%)

착용 이유	연령				전 체	유의수준
	50대 초반	50대 후반	60대 초반	60대 후반		
습관상	67(43.8)	26(29.9)	28(34.6)	18(19.0)	139(33.4)	$\chi^2=16.88^{***}$ df=3 p<.001
동작시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74(48.4)	47(54.0)	44(54.3)	43(45.3)	208(50.0)	$\chi^2=2.18$ df=3 p<.001
젖꼭지점 등 가슴형태가 의복위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76(49.7)	39(44.8)	32(39.5)	43(45.3)	190(45.7)	$\chi^2=2.26$ df=3
쳐진 가슴을 위로 받쳐주기 위해	63(41.2)	34(39.1)	37(45.7)	48(50.5)	182(43.8)	$\chi^2=3.08$ df=3
옆으로 퍼진 가슴을 모아주기 위해	33(21.6)	17(19.5)	16(19.8)	14(14.7)	80(19.2)	$\chi^2=1.79$ df=3
가슴선을 아름답게 하여 전체균형을 좋게 하기 위해	47(30.7)	22(25.3)	17(21.0)	16(16.7)	102(24.5)	$\chi^2=6.78$ df=3
가슴의 크기를 크게 보이기 위해	9(5.9)	6(6.9)	2(2.5)	4(4.2)	21(5.1)	$\chi^2=2.11$ df=3
가슴의 크기를 작게 보이기 위해	6(3.9)	2(2.3)	2(2.5)	4(4.2)	14(3.4)	$\chi^2=0.86$ df=3
기 타	4(2.6)	4(4.6)	5(6.2)	5(5.3)	18(4.3)	$\chi^2=1.97$ df=3

3) 브라지어 착용시간

노년여성들이 브라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고, 전체적으로 '24시간 착용'하는 경우는 33.9%이며, 35.6%가 '외출시만 착용'하고, 25.7%가 '잠자기 전까지 착용'한다고 하여 노년여성은 브라지어를 하루 일과 중 선택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4시간 착용한다'의 경우 50대 여성에 비해 60대 여성의 경우 착용율이 훨씬 낮고, 반대로 외출시 또는 잠자기 전까지의 착용율은 60대 여성이 더욱 높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여성은 어느 경우보다 외출시에만 착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브라지어를 의례용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브라지어 착용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항상 착용한다'의 비율이 줄고 '외출시만 착용한다'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한 강여선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표 9> 브래지어 착용시간

명(%)

착용시간 연령	24시간 착용	잠자기 전까지 착용	외출시만 착용	기 타	유의수준
50대 초반	73(47.4)	36(43.5)	40(26.0)	5(3.3)	$\chi^2=50.55^{***}$ df=12 p<.001
50대 후반	36(41.4)	24(27.6)	25(28.7)	2(2.3)	
60대 초반	16(19.8)	30(37.0)	30(37.0)	5(6.2)	
60대 후반	16(17.0)	17(18.1)	53(56.4)	8(8.5)	
전 체	141(33.9)	107(25.7)	148(35.6)	20(8.4)	

착용시간 교육수준	24시간 착용	잠자기 전까지 착용	외출시만 착용	기 타	유의수준
초등학교졸업 이하	37(31.1)	18(15.1)	57(47.9)	7(5.9)	$\chi^2=21.22^*$ df=12 p<.001
중학교졸업	26(32.5)	22(27.5)	29(36.3)	3(3.8)	
고등학교졸업	55(38.5)	38(26.6)	44(30.8)	6(4.2)	
전문대 이상	23(31.1)	29(39.2)	18(24.3)	4(5.4)	
전 체	141(33.9)	107(25.7)	148(35.6)	20(4.8)	

착용시간 소득수준	24시간 착용	잠자기 전까지 착용	외출시만 착용	기 타	유의수준
100만원 미만	18(22.5)	17(21.3)	39(48.8)	6(6.5)	$\chi^2=17.50^*$ df=12 p<.00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2(43.0)	31(25.6)	33(27.3)	5(4.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3(37.4)	34(29.6)	35(30.4)	3(2.6)	
300만원 이상	21(36.8)	13(22.8)	19(33.3)	4(7.0)	
전 체	134(35.9)	95(25.5)	126(33.8)	18(4.8)	

착용시간 출산자녀수	24시간 착용	잠자기 전까지 착용	외출시만 착용	기 타	유의수준
0~2명	47(47.5)	30(30.3)	16(16.2)	6(6.1)	$\chi^2=32.45^{***}$ df=12 p<.001
3~5명	89(31.6)	71(25.2)	109(38.7)	13(4.6)	
6명 이상	5(14.3)	6(17.1)	23(65.7)	1(2.9)	
전 체	141(33.9)	107(25.7)	148(35.6)	20(4.8)	

교육수준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중학교 졸업의 경우 '외출시만 착용'하는 경우가 47.9%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는 38.5%가

‘24시간 착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전문대 이상은 ‘잠자기 전까지 착용’하는 경우가 3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학력이 높을수록 ‘잠자기 전까지 착용’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외출시만 착용’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24시간 착용’하는 경우는 고등학교졸업까지는 그 비율이 증가하다가 전문대 이상에서는 비율이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브래지어의 착용시간이 길고 브래지어를 의례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브래지어의 보정·정용효과를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 착용시간을 살펴보면,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외출시만 착용’하는 비율이 48.8%로 가장 높았고 ‘24시간 착용’하거나 ‘잠자기 전까지 착용’하는 비율이 22.5%, 21.3%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브래지어를 의례용적인 목적으로 착용하는 결과를 보였고, 100만원 이상의 나머지 세 집단인 경우는 ‘24시간 착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외출시만 착용’ ‘잠자기 전까지만 착용’의 순으로 응답하여 브래지어를 보정·정용효과면에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의 브래지어 착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자녀수별로 살펴보면, 0~2명의 경우 ‘24시간 착용’(47.5%), ‘잠자기 전까지 착용’(30.3%) 순으로 착용시간이 긴 반면 6명 이상의 경우는 반대로 과반수 이상이 ‘외출시만 착용’(65.7%)하며 ‘잠자기 전까지 착용’(17.1%)하거나 ‘24시간 착용’(14.3%)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 브래지어 착용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유의적 차이를 보여 출산자녀수가 많은 노년여성일수록 브래지어를 의례적인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여성은 브래지어를 24시간 착용하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착용하며 연령이 높고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 브래지어 착용시간이 짧고 의례적·선택적으로 착용하는 반면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브래지어의 착용시간이 길고 브래지어를 의례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브래지어의 보정·정용효과를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를 항상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표 10>에서 살펴보면, 전체 노년여성 모두 ‘계속 착용시 답답하다’(65.5%)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물감을 느끼고 피부에 닿는 부위가 가렵고 불편하다’(24.6%), ‘동작시 자주 손으로 브래지어 위치를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귀찮다’(17.3%) 순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 유일하게 연령적 차이를 나타낸 ‘계속 착용시 답답하다’의 문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50대 노년여성은 24시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60대 여성은 외출시만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연령에 따른 착용시간의 차이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50대 여성의 경우 답답함, 이물감, 동작시 위치변화로 인한 불편 순으로 결과를 나타낸 강여선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성들은 브래지어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 이물감, 동작변화에 따른 불편이 위에서의 브래지어 착용시간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

명(%)

착용 이유	연령				전 체	유의수준
	50대 초반	50대 후반	60대 초반	60대 후반		
계속 착용시 답답하다	86(56.2)	52(61.2)	59(74.7)	72(76.6)	269(65.5)	$\chi^2=14.61^{**}$ df=3 p<.01
이물감을 느끼고 피부에 닿는 부위가 가렵고 불편하다	32(20.9)	19(22.4)	27(34.2)	23(24.7)	101(24.6)	$\chi^2=5.25$ df=3
동작시 자주 손으로 브래지어의 위치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귀찮다	25(16.3)	18(21.2)	12(15.2)	16(17.2)	71(17.3)	$\chi^2=1.24$ df=3
가슴의 모양을 변화시켜 자연스런 미를 감소시킨다	7(4.6)	4(4.7)	1(1.3)	4(4.3)	16(3.9)	$\chi^2=1.84$ df=3
체온상승을 유발해서 더 덥다	20(13.1)	12(14.1)	9(11.4)	16(17.2)	57(13.9)	$\chi^2=1.35$ df=3
과인 옷을 입을 때 브래지어가 겹으로 드러나서 신경이 쓰인다	14(9.2)	5(5.9)	4(5.1)	5(5.4)	28(6.8)	$\chi^2=2.11$ df=3
기 타	4(2.6)	5(5.9)	0(0.0)	0(0.0)	9(2.2)	$\chi^2=9.37$ df=3

3.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치수 인지도 및 치수 분포

1) 브래지어 치수인지도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치수인지도에 대한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전체적으로 노년여성들은 브래지어 치수를 '알고 있다'(71.1%)고 응답하므로써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연령·교육수준·월수입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50대 초반의 여성은 82.5%가 자신의 브래지어 치수를 알고 있다고 한 반면 60대 후반의 여성은 55.2%만이 치수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노년후기로 갈수록 브래지어 치수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분석하면, 초등학교졸업 이하는 '알고 있다'(56.2%), '모르고 있다'(43.8%)가 비슷한 비율로 응답한 반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은 약 81%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치수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월수입별로 분석하면,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알고 있다'(55.6%), '모르고 있다'(44.4%)가 비슷한 비율로 응답한 반면 월수입이 그 이상인 경우는 약 75%가 '알고 있다'에

<표 11> 브래지어 치수 인지도

명(%)

연령 \ 인지도	모른다	알고 있다	유의수준
50대 초반	27(17.6)	127(82.5)	$\chi^2=25.03^{***}$ df=3 p<.001
50대 후반	21(24.1)	66(75.9)	
60대 초반	30(37.0)	51(63.0)	
60대 후반	43(44.8)	53(55.2)	
전 체	121(29.0)	297(71.1)	
교육수준 \ 인지도	모른다	알고 있다	유의수준
초등학교졸업 이하	53(43.8)	68(56.2)	$\chi^2=34.91^{***}$ df=3 p<.001
중학교졸업	32(40.0)	48(60.0)	
고등학교졸업	27(18.9)	116(81.1)	
전문대 이상	9(12.2)	65(87.8)	
전 체	121(29.0)	297(71.1)	
소득수준 \ 인지도	모른다	알고 있다	유의수준
100만원 미만	36(44.4)	45(55.6)	$\chi^2=16.60^{***}$ df=3 p<.00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1(25.6)	90(74.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4(20.7)	92(79.3)	
300만원 이상	11(19.3)	46(80.7)	
전 체	102(27.2)	273(72.8)	
출산자녀수 \ 인지도	모른다	알고 있다	유의수준
0~2명	20(20.0)	79(79.8)	$\chi^2=14.61^{***}$ df=2 p<.001
3~5명	82(28.9)	202(71.1)	
6명 이상	19(54.3)	16(45.7)	
전 체	121(29.0)	297(71.1)	

응답하여 치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출산자녀수별로 분석하면, 0~2명인 경우는 79.8%가 '알고 있다'고 한 반면 6명 이상은 45.

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 치수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치수인지도는 연령이 낮고 학력과 월수입이 높고 출산 자녀수가 적은 집단일수록 치수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2)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치수분포

노년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의 치수는 <표 12>와 같은 분포를 보이며, 노년여성 이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치수는 90A(20.5%), 85A(19.2%), 95A(13.5%), 85B(8.3%), 90B(6.7%), 95B(6.7%), 80A(5.8%), 100A(5.5%), 75A(4.2%) 순으로써 밑가슴둘레는 85~90이, 컵치수는 A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초반 노년여성은 85A(26.5%), 90A(26.5%), 85B(9.9%), 90B(6.8%), 95A(6.8%) 순으로, 50대 후반 노년여성은 85A(21.7%), 90A(15.9%), 95A(14.5%), 80A(10.1%) 순으로, 60대 초반 노년여성은 90A(20.8%), 95A(13.2%), 95B(13.2%), 85A(11.3%) 순으로, 60대 후반 노년여성은 90A(12.1%), 95B(13.8%), 100A(12.1%), 85A(6.9%)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브래지어 치수가 커질 수 있는데 이는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실제체형에 비해 큰 치수의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경향이 있고 노년여성의 경우는 외의 의복사이즈 선택에 있어 압박감이 없는 여유 있는 의복을 선택하며 브래지어에 있어서도 착용시 조임이 전혀 없는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하는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유방유형별로 살펴보면, 납작형은 85A(26.3%), 80A·90A·95A(15.8%) 순으로, 원추형 및 반구형은 85A(29.0%), 90A(13.2%), 95A(13.2%), 85B(11.8%) 순으로, 돌출형은 95A(29.6%), 95B(25.9%), 85A(11.1%) 순으로, 하수형 I·하수형 II는 90A(25.8%), 85A(15.8%), 95A(11.1%), 85B(8.4%) 순으로써 모든 유형이 대체로 높은 치수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납작형이 약간 작은 치수에 분포되어 있고 돌출형이 대체로 큰 치수에 분포되었고 그 다음으로 하수형 I·하수형 II, 원추형 및 반구형 순으로 큰 치수에 분포된 결과를 보여 유방유형별 유의적인 차가 있음을 보였다.

<표 12> 브래지어 치수분포 명(%)

연령	치수					유의수준
	70 AA	70 A	75 A	75 B	75 C	
50대 초반	1(0.8)	0(0.0)	7(5.3)	1(0.8)	0(0.0)	$\chi^2=87.84^{***}$ df=51 p<.001
50대 후반	0(0.0)	1(1.5)	2(2.9)	1(1.5)	0(0.0)	
60대 초반	0(0.0)	1(1.9)	2(3.8)	0(0.0)	0(0.0)	
60대 후반	0(0.0)	0(0.0)	2(3.5)	0(0.0)	0(0.0)	
전 체	1(0.3)	2(0.6)	13(4.2)	2(0.6)	0(0.0)	

<표 12> 계 속

연령 \ 치수	80 A	80 B	80 C	85 A	유의수준
50대 초반	5(3.8)	6(4.6)	0(0.0)	35(26.5)	$\chi^2=87.84^{***}$ df=51 p<.001
50대 후반	7(10.1)	2(2.9)	0(0.0)	15(21.7)	
60대 초반	4(7.6)	1(1.9)	0(0.0)	6(11.3)	
60대 후반	2(3.5)	2(3.5)	1(1.7)	4(6.9)	
전 체	18(5.8)	11(3.5)	1(0.3)	60(19.2)	

연령 \ 치수	85 B	85 C	90 A	90 B	90 C	유의수준
50대 초반	13(9.9)	2(1.5)	35(26.5)	9(6.8)	2(1.5)	$\chi^2=87.84^{***}$ df=51 p<.001
50대 후반	7(10.1)	2(2.9)	11(15.9)	7(10.1)	0(0.0)	
60대 초반	2(3.8)	1(1.9)	11(20.8)	3(5.7)	2(3.8)	
60대 후반	4(6.9)	0(0.0)	7(12.1)	2(3.5)	1(1.7)	
전 체	26(8.3)	5(1.6)	64(20.5)	21(6.7)	5(1.6)	

연령 \ 치수	95 A	95 B	95 C	100 A	유의수준
50대 초반	9(6.8)	4(3.0)	0(0.0)	3(2.3)	$\chi^2=87.84^{***}$ df=51 p<.001
50대 후반	10(14.5)	2(2.9)	0(0.0)	2(2.9)	
60대 초반	7(13.2)	7(13.2)	0(0.0)	5(9.4)	
60대 후반	16(27.6)	8(13.8)	2(3.5)	7(12.1)	
전 체	42(13.5)	21(6.7)	2(0.6)	17(5.5)	

유방유형 \ 치수	70 AA	70 A	75 A	75 B	75 C	유의수준
납작형	0(0.0)	0(0.0)	2(10.5)	1(5.3)	0(0.0)	$\chi^2=106.13^{***}$ df=51 p<.001
원추형·반구형	1(1.3)	0(0.0)	1(1.3)	1(1.3)	0(0.0)	
돌출형	0(0.0)	0(0.0)	0(0.0)	0(0.0)	0(0.0)	
하수형	0(0.3)	2(1.1)	10(5.3)	0(0.0)	0(0.0)	
전 체	1(0.3)	2(0.6)	13(4.2)	2(0.6)	0(0.0)	

유방유형 \ 치수	80 A	80 B	80 C	85 A	유의수준
납작형	3(15.8)	0(0.0)	1(5.3)	5(26.3)	$\chi^2=106.13^{***}$ df=51 p<.001
원추형·반구형	4(5.3)	6(7.9)	0(0.0)	22(29.0)	
돌출형	0(0.0)	0(0.0)	0(0.0)	3(11.1)	
하수형	11(5.8)	5(2.6)	0(0.0)	30(15.8)	
전 체	18(5.8)	11(3.5)	1(0.3)	60(19.2)	

<표 12> 계 속

유방유형 \ 치수	85 B	85 C	90 A	90 B	90 C	유의수준
납작형	0(0.0)	0(0.0)	3(15.8)	0(0.0)	0(0.0)	$\chi^2=106.13^{***}$ df=51 p<.001
원추형·반구형	9(11.8)	0(0.0)	10(13.2)	4(5.3)	1(1.3)	
돌출형	1(3.7)	1(3.7)	2(7.4)	2(7.4)	0(0.0)	
하수형	16(8.4)	4(2.1)	49(25.8)	15(7.9)	4(2.1)	
전 체	26(8.3)	5(1.6)	64(20.5)	21(6.7)	5(1.6)	

유방유형 \ 치수	95 A	95 B	95 C	100 A	유의수준
납작형	3(15.8)	0(0.0)	0(0.0)	1(5.3)	$\chi^2=106.13^{***}$ df=51 p<.001
원추형·반구형	10(13.2)	2(2.6)	0(0.0)	5(6.6)	
돌출형	8(29.6)	7(25.9)	1(3.7)	1(3.7)	
하수형	21(11.1)	12(6.3)	1(0.5)	10(5.3)	
전 체	42(13.5)	21(6.7)	2(0.6)	17(5.5)	

IV. 결 론

본 연구는 노년여성의 체형과 기호에 알맞는 우수한 브래지어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노년기의 외생활 향상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50~60대 노년여성 418명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브래지어 착용현황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과의 상호관계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결론 및 제언

- 1) 노년여성의 체중 및 유방의 크기는 20대 연령시기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현상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 체중과 유방크기의 증가경향은 둔화되고 감소현상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체중의 증가현상은 증가하고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노년여성의 대부분은 자신의 유방이 처지고(77.1%), 벌어졌다(74.6%)고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의 처짐정도가 커지는 반면 벌어짐에 대한 연령적 차이는 없었으며, 출산자녀수가 많은 노년여성은 유방처짐 및 벌어짐의 정도가 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많은 출산에 따른 수유에 기인한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유방하수 경향이 감소하는 반면 벌어짐에 대한 차이는 없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처짐현상에 있어서는 불규칙한 변화 양상을 보였으며 벌어짐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여성 유

방의 처짐과 벌어짐의 주된 변인은 출산자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노년여성의 유방유형은 하수형(65.31%), 원추형(11.7%), 반구형(9.1%), 돌출형(7.7%), 납작형(6.2%)의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노년여성은 자신의 유방형태를 하수형으로 인지하고 있고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고른 유방유형의 분포를 가지며 출산자녀수가 많아질수록 하수형의 분포 비율은 높아지고 소득수준에 따른 유형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대다수 노년여성들은 신체의 성장이 이미 완료된 시기인 20대 이후부터 브래지어를 처음 착용하여 타연령대에 비해 브래지어 시착시기가 매우 늦게 이루어졌으며 연령이 높고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 시착시기는 늦어지고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브래지어의 시착시기는 빨라져 노년여성의 브래지어의 시착시기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노년여성은 방진, 정숙성, 정용효과 등을 목적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며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출산자녀수와 상관없이 모든 집단이 같은 목적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래 브래지어 착용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다.
- 6) 노년여성은 브래지어를 24시간 착용하기 보다는 하루 일과 중 외출시만 착용하는 등 선택적으로 착용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이 높고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 브래지어 착용시간이 짧고 의례적·선택적으로 착용하는 반면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브래지어의 착용시간이 길고 브래지어를 의례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브래지어의 보정·정용효과를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브래지어를 항상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 착용시 답답함과 이물감, 동작시의 불편함 등 인 것으로 나타나 착용시간과 상충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인 변화와 건강악화 등으로 브래지어 착용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착용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 7) 노년여성의 대부분(71.1%)은 자신의 브래지어 치수를 알고 있으며 연령이 낮고 학력과 월수입이 높을수록 출산자녀수가 적을수록 브래지어 치수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8) 노년여성이 착용하는 브래지어 치수분포는 매우 넓고 주로 90A, 85A, 95A치수를 많이 착용하여 밑가슴둘레는 85~90치수를, 컵치수로는 A컵치수를 주로 착용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브래지어 치수가 커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노년여성의 경우 브래지어 착용시 조임이 전혀 없는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하는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유방유형별로는 납작형(26.3%)과 원추형 및 반구형(29.0%)은 85A, 돌출형(15.8%)은 95A, 하수형(25.8%)은 90A를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유방유형별로 유의적인 차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노년여성은 연령, 교육 및 소득수준, 출산자녀수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별로 신체형태의 변화 및 착용실태와 높은 관련을 갖고 있으며 그 중 연령과 출산자녀수는 체중과 유방의 크기 및 처짐과 벌어짐 등의 신체변화와 브래지어 시착시기, 착용시간 및 치수인지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집단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노년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같은 일반환경정보가 브래지어 제품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노년여성은 브래지어 본래의 착용목적이나 자신의 브래지어 치수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노년여성 대부분의 유방형태가 Bust-up이 크게 요구되는 하수형으로써 방진·정용효과가 큰 브래지어의 착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답답함이나 이물감 등을 이유로 오랜시간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브래지어가 본래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착용감이 우수한 노년여성용 브래지어 상품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게 표집되어 연구결과를 확대·적용시키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브래지어 착용상태, 치수인지도 및 분포상태 파악과정에서 브래지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노년여성들의 주관적 평가라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제한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1. Ryan, M. S.,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 Y. : Holt, Reinhardt & Winston, Inc., 1966.
2. 中野廣, フマウンデ-ション・ランジェリ-類,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第22卷 第12號, pp. 28-33, 1991年.
3. 전재일, 노년으로서의 자기개념의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p.1, 1978.
4. Smather, D. G. & Honidge, P. E., The Effects of Physical Changes on Clothing Preferences of Elderly Women, *Int'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9 (3), pp. 273-279, 1978~79.
5. 김영숙, 노년기 여성의 상반신 체형의 유형화,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3호, pp. 219-232, 1996.
6. 김경화·최혜선, 노년기 여성 체형의 특성 및 유형화, 한국복식학회지, 제 26호, pp. 179-288, 1995.
7. 최인순, 노년기 여성의 동체부 형태분석 및 인대제작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8. 이경화, 노년여성의 흉부체형분석과 브래지어 치수규격 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9. 안영숙, Foundation 착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0. 박미경, 직업여성의 속옷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1. 손희순, 브래지어 및 거들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32권, 12월, 1991.
12. 김정은, 시판 화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불만족요인 연구, -브래지어와 거들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3. 강여선, 기능적 Brassiere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4. 이경화, 앞의 책.
15. 박은미, 손희순, 20대와 40대 성인 여성의 유방형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2호, p. 97, 1996.
16. 김경숙, 이춘계, 평면사진계측에 의한 유방형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4호, 1993.
17. 이성민, 성인여성의 상반신 체형연구, -유방형태유형화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18. 손희순, 브래지어 및 거들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32호, p. 23, 1992. 12.
19. 손희순, 앞의 책, p. 23.
20. 강여선, 기능적 브래지어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7-40, 1991.
21. 강여선, 앞의 책, pp. 35-37.
22. 강여선, 앞의 책, p. 40.
23. 박명순, 여대생 brassiere size의 분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24. 조은주, 노년기 여성의 의복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8, 1987.